

남구 청년들, 취업하면 장려금 받는다

채용 후 6개월 정규직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등 지원 확대

광주 남구가 관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남구는 22일 “청년 창업과 취업을 응원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 8기 청년 분야 두 번째 공약으로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사회 초년생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에 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 및 가구 소득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업 장려금 신청 기간은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7월부터 12월 사이다. 장려금은 청년 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지난 1월1일부터 구직활동에 나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정규 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향후 취업에 성공해 6개월 이상 직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취업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 8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관내 청년 직장인 170명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

인 취업성공 수당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임금 외 취업유지 지원금을 받은 청년 구직자는 중복 지원에 해당해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자신이 몸담은 기업의 사업주 등이 형제·자매 관계에 있거나 공공근로 등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62-607-2673)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 (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통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청년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초부터 어학 시험과 각종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광산구, 2023 정책 공유 한마당 개최

지속성장일자리·명품길 등 소통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 새로운 정책들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새 부서, 새 선수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뚝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행사는 광산구 신설부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 계획을 시민·공직자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성장일자리과·명품길추진단·외국인주민과 3개 부서가 차례로 각 부서의 비전·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속성장일자리과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지속가능성장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노동환경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일터혁신’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밝혔다.

명품길추진단은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영산강이 만나는 동곡두물머리까지 약 30리 구간을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 새로운 정책들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제공**

한 견고 싶고 찾고 싶은 탐방로로 탈바꿈시키는 30리길 조성 사업의 취지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외국인주민과는 선·이주민 상생과 화합 지원 정책,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각 부서의 정책 발표 후에는 시민, 공직자가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묻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는 질의응답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8기 광산의 모든 정책은 시민 소통으로 시작해 시민의 참여로 완성될 것이다”며 “조직과 정책의 혁신, 상생 기반에 시민 참여를 더한 완벽한 삼박자로 더 나은 광산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광주 서구가 난방비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만원씩 개별 지원한다.

서구는 정부와 광주시 지원과 별개로 구비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서구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22일) 기준으로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022년도 연 매출 2억원 미만(부가세 포함) 임차 소상공인 1만여 명이다.

서구는 또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목욕탕업·숙박업·화훼재배업을 중점 피해업종으로 분류해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난방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2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서구청 경제과 이메일 (endej2231@korea.kr)로 제출하거나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서구내 소재지 무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혜인 기자

북구,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정책개선과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467개 기관을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

다. 이에 북구는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혁신행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021년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부서별 데이터 전수조사, GIS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공동 활용 데이터 조사·발굴 노력과 등록 실적은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나해 데이터팀 구축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 및 정책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